

전북지역 소비자 경제 심리 회복세 뚜렷

5월 소비자심리지수 106.0 기록... 경기 전망·주택가격 기대 동반 상승

전북지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한 달 만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생활형편과 소비지출, 경기 전망 등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0으로 집계돼 전월 100.5보다 5.5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도 106.1로 전월 대비 6.9포인트 올라 전국적으로 소비심리가 개선 흐름을 나타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과 가계수입전망,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주요 지표를 종합해 산출하는 지수다.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장기 평균보다 소비심리가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이번 상승은 경기 관련 지표가 크게 개선된 영향이 컸다. 현재경기판단CSI는 76에서 87로 11포인트 상승했고, 향후경기전망CSI도 86에서 94로 8포인트 올랐다. 현재생활형편CSI는 90에서 92로, 생활형편전망CSI는 93에서 98로 각각 상승하며 가계 체감경기 역시 회복

흐름을 보였다.

가계수입전망CSI는 96에서 99로, 소비지출전망CSI는 107에서 109로 상승했다.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여행비와 외식비, 내구재, 교양·오락·문화비는 증가 전망이 확대된 반면 교육비와 주거비, 교통·통신비, 의료·보건비는 다소 하락했다.

고용시장과 자산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취업기회전망CSI는 86에서 89로 상승했고, 주택가격전망CSI는 106에서 114로 크게 올랐다. 임금수준

전망CSI도 119에서 123으로 상승했다.

반면 금리수준전망CSI는 113으로 전월과 동일해 고금리 부담 인식은 여전히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5에서 144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가계 저축과 부채 관련 지표도 동반 상승했다. 현재가계저축CSI는 93에서 95로, 가계저축전망CSI는 94에서 97로 상승했다. 현재가계부채CSI와 가계부채전망CSI는 각각 99에서 101로 올랐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6개 시 지역 4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376가구가 응답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시는 지난 21일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공사현장에서 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 자재·장비 우선 사용 등을 당부했다.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요청

전주시·대한전문건설협회, 전시컨벤션센터 공사현장 방문

전주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현장 찾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전주시는 지난 21일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공사현장에서 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 자재·장비 우선 사용 등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변동현 전주시 건축과장을 비롯한 지역건설지원팀과 컨벤션시설팀이 참석했으며,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삼부종합건설, 부강건설, 동일종합건설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전주시는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인 만큼 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를 협력업체로 적극 등록하고, 지역 제한입찰 등을 통해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지역 자재와 장비를 우선적으로 활용해 줄 것도 당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측은 지역 건설업체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설명하며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부안 이레농장, 유기농 뽕나무 기반 생태체험 농장으로 주목

서울·프랑스 경험 바탕으로 6차 산업형 농촌 모델 구축

전북 부안군 보안면 청치로 1483-43에 위치한 '이레농장'이 유기농 뽕나무를 기반으로 한 생태체험 농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약 5,000평 규모로 조성된 이레농장은 서해바다와 변산반도의 자연환경을 품은 입지 조건 속에서 뽕나무 숲, 생태놀이터, 허브밭 등을 갖추고 자연 체험과 휴식을 동시에 제공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레농장은 단순한 농산물 생산을 넘어 관광·교육·체험·가공이 결합된 6차 산업형 농촌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농장 측은 "자연 속에서 머물며 농업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과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레농장을 운영하는 박연미 대표는 서울에서 학업을 마친 뒤 약 10여 년간 프랑스에서 생활하며 유럽의 농업·식문화·지속가능 농업 모

델을 경험한 뒤 귀국했다. 이후 고국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가업이던 뽕나무 농장을 이어받아 현재의 이레농장을 재정의하고 체험형 농장으로 확장했다. 박 대표는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을 단순 생산이 아닌 '먹거리·교육·문화가 결합된 산업'으로 재해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농장은 친환경 방식으로 재배한 뽕나무를 중심으로 누에 사육과 오디 생산을 병행하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뽕나무를 활용해 농업 과정을 체험하는 '왕뽕농부 체험', 식재료를 활용해 요리를 만들어보는 '왕뽕세프체험', 뽕나무를 활용한 식사를 제공하는 '팜투 테이블(뽕비큐밥상) 체험' 등이 있다. 방문객들은 생산·가공·체험·소비의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박연미 대표

수 있다.

박 대표는 현장 운영 과정에서 뽕나무와 누에의 활용 가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뽕잎은 전통적으로 누에 사육에 활용돼 왔으며, 최근에는 차·건강식품·기능성 원료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누에와 뽕나무 부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지역 업체 협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레농장은 OEM 방식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가공 제품을 생산하며 농업과 식품 산업을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생산된 원료는 외부 전문 업체와 협력해 제품화되며, 이를 통해 농장 단독 생산의 한

계를 넘어서는 확장형 농업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박연미 대표는 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강조했다. 그는 "농업은 단순한 생산 산업이 아니라 사람과 지역,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며 "농장을 찾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농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레농장은 향후 지역 농가 및 청년 창업자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체험 콘텐츠와 가공 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 공간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과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이레농장은 유기농 뽕나무를 기반으로 생산·체험·교육·가공이 결합된 구조를 통해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6차 산업형 농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상근 기자

한전 임실지사, 배전운영분야 우수사업소 선정

한국전력공사 임실지사가 전국 사업소 대상으로 한 배전운영 분야 종합 평가에서 우수사업소로 선정됐다.

한전 임실지사는 지난 20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2025년 배전운영분야 성과 워크숍'에서 우수사업소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각 지역 사업소를 대상으로 △정전시간 단축 등 전력공급 신뢰도 △배전설비 유지보수 효율성 △안전사고 예방활동 △고객 만족도 등 전력설비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다.

한전 임실지사는 드론과 AI 이미징 기술을 활용한 전력설비 진단체계 개



선으로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성과를 거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유지해 온 점도 인정받았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글로벌강소기업 실무자 간담회 가져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수출선도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22일 전북테크노파크 교육장에서 '2026년 글로벌강소기업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글로벌강

소기업 1,0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수출 확대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행사에는 비나텍, 다산기공, 시지트로닉스 등 도내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와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 등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해 수출·금융 지원 정책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2026년 지역자율프로그램 안내 △수출지원 시책 설명 △금융·보증 지원 제도 소개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특히 전북테크노파크는 현재 모집

중인 지역자율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개발, 사업화, 공정 개선, 디지털 전환, ESG 경영,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정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5천만 원 규모의 지원이 제공된다.

참석 기업들은 수출 및 사업화 지원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기관과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논의할 수 있어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전북테크노파크는 오는 6월 5일까지 관련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하나로마트 선도농협 전북협의회 정기총회 열려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는 지난 22일 농협전북본부 회의실에서 '2026년 하나로마트 선도농협 전북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하나로마트 선도농협 전북협의회는 마트사업을 선도하는 지역농협 조합장 21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회원농협 간 협력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역할

을 맡고 있다. 현재 협의회장은 진안농협 김문중 조합장이 맡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결산보고와 함께 2026년도 사업계획안인 심의·의결했다. 참석자들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과 온라인시장이 급변하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